

IEA, “한국, 산업고도화로 에너지 수요감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경제가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적은 고도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에너지 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9월24일 발표한 [2002년 한국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수요증가율은 2010년까지 현재의 5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며, 전기 및 연료 수요증가율이 연평균 3.2%에 그쳐 1990년대의 7.7%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경제는 점점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전력 산업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세계 제4위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서 시가총액 기준 3대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KT로 모두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이며, 기술력이 한국경제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IEA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수요증가율이 2030년까지 2.3%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유보다는 다소 값이 싼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9/ 27 >